



MBC_전지적 참견 시점
2019년 5월 18일 방영

두 달 만에 돌아온 영자 미식회 -오리로스(Ft. 더덕무침)-



이영자: 오리로스의 첫 기름은 빼주고



이영자: 진액이 나올 때 익은 김치와 더덕무침을 올려줍니다.



송성호(이영자 매니저): 저는 더덕을 반찬으로 먹은 적은 있어도 고기에 싸먹은 적은 처음이거든요. 더덕의 향긋한 향과 오리고기의 식감, 두 개가 합쳐지니까 환상의 조합이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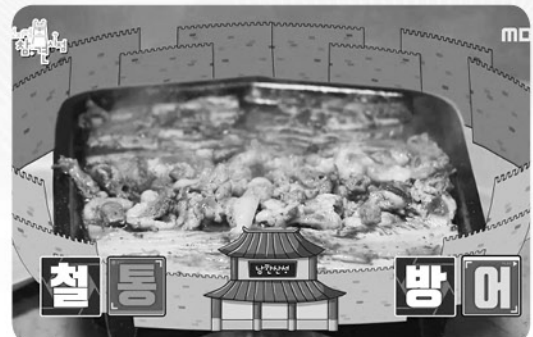
진현무 : 인간적으로 여기는 알려줘요~



이영자 : 누가 오리로스 뺏어 먹을까봐!



이영자 : 안돼~ 가족끼리 해서 손님 많이 못 받아~



절로 미소 짓게 되는 맛, 오리고기



이영자 : 자, 이제 배추김치에 싸서 먹어보세요.



이영자 : 왜 남한산성을 지었는지 알겠다.



영자가 알려준 대로 크게 한 입



오리로스를 감칠맛 있게 해주죠?

이영자 : 김장김치의 시큼시큼~한 맛이 오리로스를 감칠맛 있게 해주죠? 그 다음 맛을 기다리지 않아요?



남한산성으로는 부족...
행주산성까지 소환



이영자 : 내가 봤을 땐 오리로스에 김치 싸먹는 맛 지키러 행주산성이 이쪽으로 와야 할 것 같아요. 남한산성으로는 부족해요.



상추 더덕 김치와 다채롭게 오리 섭취



깨끗

이영자 : 송팀장 잘 먹으니까 너무 좋다~ 고맙고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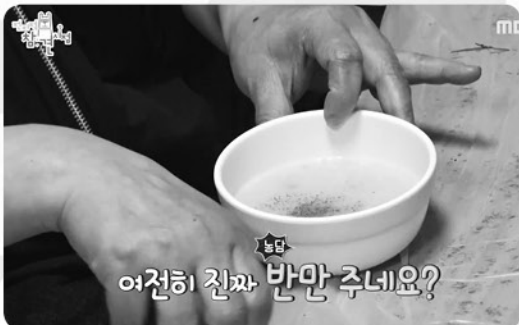


예술!
오리로스 + 더덕 + 김장김치

송성호(이영자 매니저) : 오리로스, 더덕, 김장김치 세 가지의 조합은 예술이었습니다!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니까 기운이 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!



오리로스의 마무리는 녹두죽!



여전히 진짜 반만 주네요?

이영자 : 여전히 진짜 반만 주네요~?



이영자 : 이 녹두죽이 차~악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먹은 아침 일찍 공복에 먹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해준다니까요~ 한 마리 더 부르지 않아요?



이영자 : 팀장님이 열어봐요.



이영자 : 원래 오리백숙 사주려고 했는데 오리로스 먹고 싶다 해서 이걸 싸줄게요. 11년 동안 묵묵히 아들을 매니저로서 응원해 주신 어머니 가져다 드려요.



송성호(이영자 매니저) : 마지막에 오리백숙 포장 하나 하셔서 저를 주시더라고요. 11년 동안 매니저로서 버틸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신 어머니께 꼭 가져다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. 의미가 남달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

